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지각

Social Networks and Self Perceived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김 명 숙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Kim, Myung Sook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s and perceived self-competence. The subject were 350 third and sixth graders selected from a public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children were administered the Pattison Psychosocial Network Inventory and The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Three major questions are addressed; 1)age changes 2)sex differences, and 3) the 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s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one-way ANOVA. Proportion measures were also used since they had allowed for the observ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wo subsets of people within given categories(e.g.,the number of relatives divided by the number of relatives plus nonrelatives).

The effects of age and sex of child on the number and daily contact with kin, nonkin, peers, adults, males, and females were found. Sixth graders had a larger number of adults than third graders. While children had a greater number of adults than peers, they had more contact with peers than with adults in their network.

It was found that boys had greater number of people in their network than girls. And boys had a larger number of and more contact with males, and girls had a larger number of more contact with females. The structure of childrens' social networks structure were correlated with perceived self-compet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의 사회적 세계는 친밀한 관계 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의 초기에는 부모, 형제 등의 가족 성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성원들 이외의 성인들이나 또래친구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동의 사회적 세계를 점차 확대해 간다. 이러한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개념들로 제시된 것이 '사회관계망' 접근이다.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대인 관계들을 사회관계망이라 볼 수 있다.

사회관계망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특정한 사회적 세계내의 개인의 위치를 인지시키는 사회적 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은 사회관계망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배우고, 그들과 관련을 맺는 사람들의 변화, 행동, 목표, 관습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며(Cochran & Brassard,1979), 이러한 적응을 통하여 개인의 발달과 사회화가 이루어 진다. 그러므로 아동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지식은 아동발달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행, 학습문제, 다른 다양한 병리학적 문제를 가진 위기선상의 아동들에 대한 중재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들이 적응하는데 있어서 주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관계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아동의 사회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사회관계망내의 여러관계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연구해 왔다. 즉 대다수의 연구들이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형제관계등 단지 이원적인 관계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에 아동의 확장된 사회관계망에 대한 통합된 정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몇몇 연구들에서 사회관계망과 아동의 역량발달간의 관계가 있음이 시사되었다(Bryant,1985; Cochran & Riley,1987). 아동의 존중감과 유능감을 높여주는 변인으로는 또래 지지의 역할을 언급했으며(Harter, 1985), 또래보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역량에 대한 지각에 더욱 지속적인 관련을 보인다고 하였다(Cauce & Strebrik,1989). 그러나 아동의 역량지각 발달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을 동시에 본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해보고, 아동의 사회관계망이 아동의 자기역량 지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고, 아동의 사회관계망을 수정하기 위한 개입이나 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기초가 되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역량과 적응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특성에 따른 사회관계망은 어떠한가?

(1) 아동의 연령에 따라 사회관계망은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관계망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 지각은 상관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의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Boissevain,1974; d'Abbs,1982).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회관계망이 서로 접촉하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와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Coates,1987). 이러한 사회관계망은 개인의 사회적 세계를 조직적으로 정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사회관계망은 개인의 사회체제내에서 중요한 타자가 어떻게 서로 관계되어 있고 또 어떻게 서로 지지를 주고 받는지에 대한 도식적 표상을 제공한다.

한편 사회관계망은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라 하는데, 이것은 주로 관계망의 크기, 접촉빈도, 밀도등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가족이 몇명이나 등을 측정한다. 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그의 관계망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연구한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사회적 관계망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몇명이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의논할 친구가 있는가를 물어봄으로써 그 관계의 질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회관계망 구조는 그 관계망내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사회적 세계나 인생의 공간에 대한 지표로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지도의 역할을 한다(Feiring & Coates, 1987). 그리고 사회관계망 구조적 특징을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아동들이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를 나타내는 관계망 크기와 '아동이 관계망 구성원을 만나고 전화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접촉빈도이다.

1)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망

아동의 사회관계망은 발달과업상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Cochran & Brassard,1979; Feiring & Lewis,1979). 아동이 자라면서 생물학적으로 성숙해지고, 독립적으로 되고, 사회적 기술이 숙련되어감에 따라 아동의 욕구나 역량에 반응하는 관계망도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초기에 유아는 복잡한 사회관계망속에서 태어나지만, 그 관계망은 주로 양육자의 관계망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곧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고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관계망을 구축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연령에 따라 살펴본 연구를 보면, 23개월-40개월된 아동보다 41개월-55개월된 아동이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add, Price, & Hart, 1988), Feiring과 Lewis(1987)는 연령변화에 따른 관계망 구조의 변화와 변동 안정성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다. 3-6세를 관계망 구조상 변화가 있는 시기로 보았고 6세때는 과도기로서 확대된 사회적 세계와 학교생활의 요구에 적응해 나가는 시기이며 9세때는 6세때의 주요 경향을 통합하는 연령기로 보았다.

따라서 유아기 동안에는 가족, 특히 부모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부터 아동은 가정중심 존재에서 학교중심의 존재가 됨에 따라 부모 뿐만아니라 선생님 또는 학교내의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또래 친구들로 사회관계망의 크기가 확대된다. 또한 가족 외부로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족이외의 다른 성인들과의 접촉빈도도 많아지게 될것이다.

2) 성에 따른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내에서 아동의 성차는 수년동안 학자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 성차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수의 하나임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은 일관성이 없으며 각기 다른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어떤 연구자들은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더 확장적인 또래나 성인의 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며(Bryant,1985; Tietjen,1982), 가정밖의 외부환경을 보다 잘 이용한다(Bryant,1985)고 주장한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사회관계망이 넓은 것으로 보고하였다(Dubow & Ullman,1989). 또한 사회관계망

에서 성차를 밝히지 못한 연구결과도 있다 (Coates,1987). 이와 같이 서로다른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의 사회관계망 구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2.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많은 아동 관찰자와 학자들은 아동들이 자신의 역량에 대해 확일적으로 긍정적이며 때로는 과장된 지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Harter(1982)는 역량의 개념을 발달적 입장에서 파악하였다. 즉 아동들은 모든 숙련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똑같이 유능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8세 이상의 아동은 역량 서로 다른 영역을 구별하며,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치도 갖는다. 그러므로 아동의 역량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분화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교사, 부모, 또래와 같은 타인의 평정이 아닌 아동자신의 지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아동의 역량개념은 아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을 추구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아동이 지각한 자기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은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행동적 역량, 전반적인 자아가치 등이다(Harter,1982).

3.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지각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능력과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중요한 타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Scarr와 McCartney(1983)는 아동의 수동적인 환경에서 능동적인 환경으로의 전이과정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사회환경내에서 중요한 타인이 될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적합한 장소만들기"의 타고난 경향을 의미한다. 아동기 동안 개인은 기동력이 확장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시작한다. 정서적 지지, 정보, 태도 그리고 안내의 자원으로로서의 적합한 친구 사회관계망을 선택

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아동기의 중요한 역량이다(Cauce, 1986).

이와 같이 아동기에 사회관계망과 아동의 역량 발달이 매우 중요함이 밝혀지면서,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Bryant, 1985; Cochran & Riley, 1987). Heller & Swindle(1983)은 역량발달이 사회관계망에 의해 영향받는다 주장하였다. Cauce(1986)는 11-13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역량발달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가장 친한 친구수는 학문적 역량, 친구 사귀기 역량, 그리고 지각된 자기역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Feiring과 Lewis(1991)에 의하면 청소년기 관계망은 역량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들은 사회적 역량과 사회관계망의 특성 중 접촉빈도와 가장 강한 관계를 보여주었고, 남아들은 학문적, 신체적 역량과 사회관계망의 특성 중 구성원의 수와 가장 큰 관계를 나타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관계망 구성원의 크기와 역량발달이 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지만, 확장된 관계망 형태의 변화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동이 지각한 자기 역량과 사회관계망과의 관계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2개 공립국민학교의 3학년, 6학년 아동 각각 4학급씩 8학급에서 선정된 368명이었다. 8학급 모두 남녀 혼합반이었고, 한 학급의 인원수는 45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연구자와 아동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한명이 각반에 들어가서 실시하였다. 아동들에게 질문지 내용 및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소요시간은 30-40분 정도였다. 368부중 응답이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하고 남아 186명 여아 164명 총 350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 1) 아동의 사회관계망 측정도구
아동의 사회관계망을 조사하기 위해

Pattison, Defrancisco, Wood, Frazier, & Crowder(1975)가 개발하고 Feiring과 Lewis(1987)가 수정한 Pattison 사회관계망척도(Pattison Psychosocial Network Inventory)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은 질문지에 아동이 잘 알고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관하여 응답하였다. 그 사람들의 성별, 연령, 아동과의 관계, 접촉빈도를 기록하였다. 접촉빈도는 매일 접촉빈도(1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만 분석하였으며, 전화와 만남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관계망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사회 관계망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범주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Feiring과 Lewis(1987)의 연구에 근거하여 사회관계망 구성원을 친척관계, 연령, 성별로 범주화 하였다.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친척관계는 친척(핵가족을 포함한 모든 친척)과 비친척(모든 비친척 성인과 또래)으로, 연령 범주는 성인(18세 이상의 모든 사회관계망 성인)과 또래(18세 미만의 구성원)로, 그리고 성별 범주는 남자(모든 성인과 또래)와 여자(모든 성인과 또래)로 나누었다.

2) 아동의 자기역량지각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Harter(1985)가 제작한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문적 역량, 사회적 역량, 운동적 역량, 신체적 역량, 행동적 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 6문항씩 총 36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α 는 .83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SAS/PC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사회관계망내의 구성원을 친척관계(친척/비친척), 연령(성인/또래), 그리고 성별(남/여)로 서로 대조적인 범주로 나누어, 각 범주내의 2개 유형(예, 친척/비친척)을 아동의 연령과 성별의 관련변수에 따라 변량분석을 하였다. 사회관계망의 대조적인 범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율 측정방법을 사

용하였다(예, 친척과 비친척의 수를 더하여 친척으로 나누었다). 또한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지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망

<표 1>은 각 사회 관계망 범주에서 사람수와 접촉빈도의 평균,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의 결과를 관계망내의 각 범주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사회관계망 크기, 접촉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50)

| | | 친 척 | | 연 령 | | 성 | |
|----------|-----|-------------|--------------|-------------|-------------|------------|------------|
| | | 친척 M(SD) | 비친척 M(SD) | 성인 M(SD) | 또래 M(SD) | 남 M(SD) | 여 M(SD) |
| 크기 | 3학년 | 8.75(6.22) | 9.70(6.02) | 10.26(7.30) | 8.25(5.16) | 7.28(8.67) | 7.82(4.82) |
| | 6학년 | 8.37(2.51) | 9.60(3.86) | 10.47(3.48) | 7.51(2.98) | 6.74(4.06) | 7.95(4.60) |
| 접촉 빈도 | 3학년 | 3.50(1.35) | 6.34(3.26) | 4.24(1.90) | 5.60(2.69) | 3.42(3.14) | 3.57(3.02) |
| | 6학년 | 3.79(1.58) | 6.43(3.30) | 4.73(2.02) | 5.49(2.82) | 3.52(3.22) | 3.73(3.03) |

우선 사회관계망의 친척관계(친척/비친척) 범주에서의 아동의 연령에 따른 관계망의 차이를 살펴보면, 관계망내의 친척과 비친척간의 크기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접촉빈도 비율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각 연령내에서의 친척/비친척 간의 차이를 보면 <표 1>의 결과와 같다. 3학년 아동은 친척과 비친척의 사람수는 비슷하지만, 친척보다는 비친척과 더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1.28, p<.001). 또한 6학년 아동은 친척보다는 비친척의 수가 많고(F=11.46, p<.05), 친척보다 비친척과 접촉도 더 많이 하는것으로 나타났다(F=85.67, p<.001). 따라서 3학년, 6학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각 학년내에서 볼 때는 친척보다 비친척과 더 많이 접촉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연령(성인/또래)에 따른 범주를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관계망내에서의 성인과 또래의 크기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72.46, p<.0

01), 접촉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3학년보다 6학년이 또래보다 성인의 수의 비율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학년내에서 차이를 보면, 3학년, 6학년 모두 또래보다 성인의 수가 더 많았으나(F=8.70, p<.05; F=75.46, p<.001), 접촉은 성인보다 또래와 더 빈번하였다(F=32.07, p<.001; F=7.90, p<.05).

셋째, 관계망내의 성별범주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관계망구성원의 남자와 여자의 수와 접촉빈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학년 내에서 검증한 결과는 3학년은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남, 여의 수나 접촉빈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6학년은 남, 여의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6.33, p<.05), 접촉빈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6학년은 사회관계망 구성원 중 남자 보다 여자의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성에 따른 사회관계망

<표 2>는 각 관계망 범주에 따라 관계망 크기와 접촉빈도의 평균, 표준편차를 성별로 나타내고 있다. <표 2>의 결과를 관계망내의 각 범주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척관계(친척/비친척)에서의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관계망내의 친척과 비친척간의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각 성별내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자는 친척과 비친척의 수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접촉빈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F=105.58,

〈표 2〉 아동의 성에 따른 사회관계망 크기, 접촉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50)

| | | 친척 | | 연령 | | 성 | |
|----------|----|-------------|--------------|-------------|-------------|------------|-------------|
| | | 친척 M(SD) | 비친척 M(SD) | 성인 M(SD) | 또래 M(SD) | 남 M(SD) | 여 M(SD) |
| 크기 | 남아 | 8.60(6.21) | 9.48(6.01) | 10.26(7.26) | 7.83(4.97) | 9.81(8.38) | 3.59(2.27) |
| | 여아 | 8.55(2.68) | 9.84(3.92) | 10.46(3.70) | 7.93(3.06) | 4.93(3.04) | 11.15(4.03) |
| 접촉 빈도 | 남아 | 3.54(1.34) | 6.38(3.50) | 4.35(1.92) | 5.56(2.83) | 5.38(3.06) | 1.72(1.72) |
| | 여아 | 3.74(1.59) | 6.39(3.01) | 4.59(2.02) | 5.54(2.67) | 1.38(1.59) | 5.77(2.71) |

$p < .001$). 또한 여아는 관계망내의 친척 비친척 간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12.23, p < .05$; $F=100.85, p < .001$). 이에 아동의 성에 따른 사회관계망내의 친척과 비친척의 수와 접촉빈도는 비슷하지만, 남아는 친척보다 비친척의 수가 많고, 남아, 여아 모두 친척보다는 비친척과의 접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관계망 구성원을 연령(성인/또래)으로 나눈 범주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 모두 남아와 여아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각각의 성별내에서 살펴본 결과, 남아, 여아 모두 관계망내에서 또래보다는 성인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14.10, p < .05$; $F=46.06, p < .001$). 반면에 접촉빈도는 남, 여 아동 모두 성인보다 또래와 더 빈번함을 알 수 있다($F=22.87, p < .001$; $F=13.37, p < .05$). 따라서 아동의 성에 따른 사회관계망내의 성인과 또래의 수와 접촉빈도는 비슷하지만, 남, 여아 모두 또래 보다는 성인의 수가 더 많고, 접촉빈도는 성인보다 또래와 더 빈번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성별(남/여)의 범주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873.27, p < .001$; $F=718.22, p < .001$). 이에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관계망 구성원 중 남자가 더 많고 접촉빈도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각 아동의 성별내에서의 차이를 보면 남아아동의 관계망내의 남자와 여자성원의 크기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55.19, p < .001$), 접촉빈도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99.99, p < .001$). 또한 여자아동의 경우도 관계망내의 남자와 여자성원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02.23, p < .001$; $F=32$

6.57, $p < .001$). 즉 남, 여아 모두 이성관계망보다 동성의 관계망구성원의 수가 많으며, 접촉도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지각과의 상관관계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지각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지각의 상관관계 (N=350)

| | 친척 | | 연령 | | 성 | | 전체 |
|---------|------|------|------|------|------|------|------|
| | 친척 | 비친척 | 성인 | 또래 | 남 | 여 | |
| 학문적역량 | .13* | .24* | .19* | .18* | .21* | .16* | .22* |
| 사회적역량 | .08 | .25* | .21* | .11* | .16* | .06 | .20* |
| 운동적역량 | .10* | .18* | .15* | .14* | .18* | .15 | .14* |
| 신체적역량 | .07 | .12* | .12* | .09* | .10* | .05 | .11* |
| 행동적역량 | .09 | .13* | .10* | .10* | .07 | .09* | .11* |
| 전반적자아가치 | .02 | .10* | .14* | .11* | .05 | .09 | .11* |

* $p < .05$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망내의 친척의 수는 학문적, 운동적 역량과 관계가 있었으며, 비친척, 성인, 또래의 사회관계망은 모든 자기역량 영역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성별에서는 남자 사회관계망은 신체적 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여자 사회관계망은 학문적 역량과 행동적 역량과 상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아동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역량지각간에는 하위변인에 따라 상관의 정도가 다소 다르고 낮으나, 대체로 의미있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은 사회관계망이 클수록 자신의 역량도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학년보다 6학년이 또래보다 성인의 수 비율이 더 높았으나, 성인과 또래와의 접촉 비율은 비슷하였다. 한편 3학년, 6학년 모두 또래 수보다는 성인의 수가 더 많았으나, 성인보다는 또래와 접촉이 더 빈번하였다. 이에 이 시기의 아동은 아직은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주위에 성인의 수가 또래의 비율보다 많지만, 또래와 매일 접촉하는 빈도가 증가함은 부모의 도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또래친구와 관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고 (Bryant,1985), 또래와의 적응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Hartup,1982). 그리고 학령기에는 활동범위가 확대되며, 또래친구들과 같은 집단 압력에 순응하는 시기(Cauce, 1986)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3학년, 6학년 모두 친척보다는 비친척과의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척과 보내는 시간은 감소하는 반면에 친척 이외의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Bryant(1985)의 연구결과와 어느정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아가 여아보다 관계망내의 남자의 수가 많고, 남자와 접촉빈도도 많았다. 여러연구에 의하면 여아들보다 남아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들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지므로 남아의 구조에서 여자의 수가 많을지라도 남자의 비율이 더 크다고 한다(Feiring & Lewis,1987). 이 시기 아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동성과의 교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남아, 여아 모두 친척 보다는 비친척과의 접촉이 많고, 남아는 친척보다 비친척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보다 남아가 친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친척과의 관계의 증가가 빨리 나타나며, 좀더 독립적이고,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남아아동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빨리 나타난다는 연구(Bryant,1985)와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아동의 사회관계망이 넓을수록 아동의 학문적, 사회적, 운동적, 신체적, 행동적 역량 지각이 높아졌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켜주게 되어, 이로써 자아에 대한 판단과 심리적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킨다(Heller, & Swindle,1983)는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친척의 관계망이 클수록 학문적 역량 지각과 운동적 역량 지각이 높아졌다. 이 결과는 가족과의 운동, 시간보내기, 외출 등 경험의 다양성이 아동의 역량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이주리(1991)의 연구결과와 상통한다. 또한 친구관계망과 지각된 자기역량과 정적인 상관관계는 Cauce(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이는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자신의 역량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관계망이 클수록 자기역량지각이 높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연구의 시작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결론이나 해석을 덧붙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설득력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있어서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만 제한하여 연구하였으므로,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관계망을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른 사회관계망의 특성만 조사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출생순위,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여러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측면만을 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측면의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알아본 관계망이 아동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이주리(1991).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가정관리학회지,9,131-144.
- Boissevain(1974). J.Friends of friends; Networks,manipulators and coalitions. Oxford: Basel Blackwell & Mott.
- Bryant.B(1985).The Neighborhood Walk;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 serial No 210).
- Cauce, A.M. (1986). Social networks and social competence: Exploring the effects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No. 6.
- Coates, K. (1987). Gender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and support characteristics of black adolescents' social networks, Sex Roles, 17, 667-687.
- Cochran, M., & Brassard,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9-616.
- Cochran, M.M., & Riley, D. (1987). Mother reports of children's social relations: Agents, concomitants and consequences. In J. Antrobus, S. Salzinger, & M. Hamner (Eds.), Social networks of children, adolescents and college students. Hillsdale, NJ: Erlbaum.
- d'Abbs, P. (1982). Social support networks. A critical review of models and findings. Monograph No. 1, Institute of family studies. Melbourne: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Dubow, E.F., & Ullman, D.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8, 52-64.
- Feiring, C., & Coates, D. (1987). Social networks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space of opportunity: Introduction. Sex Roles, 17, 611-620.
- Feiring, C., & Lewis, M. (1979). The child's social network: social object, social functions and their relationship. In M. Lewis, Rosenblum (Eds.), The child and its family (pp. 9-27). New York: Plenum.
- Feiring, C., & Lewis, M. (1987). The child's social network: Sex differences from three to six years. In C. Feiring & D.L. Coates (Eds.), The Social networks of males and females: A life span perspective [special issue].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17, 621-636.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Hartup, W. (1982). Peer relations. In P.H. Mussen (Ed.) & E.M. Hetheringto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03-196). New York: Wiley.
- Heller, K., & Swindle, R.W. (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In R.K. Felner, L.A. Jason, J. Moretsugu, & S. Farber (Eds.), Preventive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community intervention (pp. 87-100). Elmsford, NY: Pergamon press.
- Pattison, E.M., Defrancisco, D., Wood, P., Frazier, H., & Crowder, J. (1975). A psychosocial kinship model of family 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2, 1246-1256.
- Scarr, S., & McCartney, K. (1983).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s: A theory of genotype-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 424-435.
- Tietjen, A.M. (1982). The Social networks of preadolescent children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5, 111-130.